

신년특집

불교문화계 전망



개방화시대... 문화포교 활로 찾는다

문화시장이 활짝 개방됐다. 출판유통시장과 음악교 육, 공연장·운영 등이 부분 또는 완전히 개방되는 등 바야흐로 세계 문화개방시대에 들어섰다. 오직 감자 만이 살아남는 문화 전쟁시대를 맞아 불교문화계는 아 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올 한 해동안 장르별로 새로운 활로모색과 저변확대를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 학관련 단체들이 지방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해야 한다 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편집자 주)

문학

‘문학의 해’인만큼 불교문학의 활성화도 특히 기대되고 있다. 이제껏 불교를 중심테마로 작품활동을 해 온 작가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작품발표 계획을 밝히지는 않지만 백금남 남지심 황충상씨를 비롯한 작가들이 작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승려시인회도 올 한해 동안 활동의 영역을 넓혀 시집 투기와 낭송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학의 해와 불교문학의 활성화를 한 테 두리로 묶어 ‘희망적’이라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미술의 해에 불교미술인들이 개별적인 활동을 왕성히 보였으나 미술의해 조직위와 연계한 행사를 갖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문학

지방 소그룹활동 ‘관심’ 장르 다양화 통한 질적향상 기대

인들도 문학의 해란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의 활동을 펴 나갈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짜여진 불교문학의 큰 기류가 얼마만큼 지방화될 것인지에 예측하기가 곤란한 형편이다. 지방문인들의 활동이 문학의 해라고 해서 일약 왕성해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불교문학단체들이 지방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또 고려·조선시대와 이어져서 우리나라 시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 선시에 대한 대조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불교시선집 등의 출간으로 불교문학을 둘러싼 담론의 형성도 기대된다. 한편, 불교문학을 수용할 본격 문학지의 태동이 올 한해 불교문화계가 이뤄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출판

지난해 불서신간 발행종수는 160여종으로 94년(301종)에 비해 60% 수준에 머물렀다. 그만큼 불행에 시달렸다. 불서출판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이 올해라고 특별히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전반적으로 책을 읽지 않는 불교내외 분위기, 하강곡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경제전망을 그 이유로 든다. 여기에다 정치적으로 흥선까지 있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서전문출판사들은 학술서 교리서보다는 법어집 수상집 등 비교적 독자층이 넓은 불서에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불교학술서를 주로 펴냈던 민족사 불교시대사는 <인공고승경

법어·수상집 독자 확보 저작권법 개정 학술서 번역 위축

전> <세계고승법문집>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57년 이후 사망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을 소급보호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개정 전에는 87년 이후 외국저작물만 저작권을 보호했다)됨에 따라 저작권료의 추가부담이 따르는 학술서 번역출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에는 좀 더 참신한 필자의 불서가 여러 종 선보이며 필자의 세대교체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는 또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하고 청소년포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키로 함에 따라 청소년 대상의 불서출간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미술

지난해가 ‘미술의 해’였던 관계로 불교미술인들의 활동이 왕성했지만 그러한 기류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미술계가 지난해에 다진 기반을 토대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진단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그룹전이나 특별 이벤트보다는 개인적인 전시회나 해외에서의 활동 폭이 넓어질 것’ 이라게 미술평론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고조와 실천의 마당 넓히기에 동참하는 작가들의 활동도 주목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그 좋은 예가 지난해 10월 민족환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회(회장 강행원, 이하 환경연)의 발족이다.

창작영역 폭넓게 모색 전통불교미술 현대적 해석 늘듯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어 환경을 보호, 사랑한다’는 의지로 결성된 환경연은 그 실천의 하나로 오는 5월10일 서남미술관에서 생태환경미술제를 개최해 환경미술운동의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된다. 고정 장르를 벗어나 창작의 영역을 다양화시키려는 것이 미술계의 동향이란 점에서 불교미술가들의 소재 다양화, 전통불교미술의 현대적 해석 등에 대한 시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미술계는 굳이 서울중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산, 광주, 전주,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 불교미술인들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종교인들의 불교소재 접근도 눈여겨 볼만.

음악·연극

불교음악 무대에도 올 한해동안 열기가 모아질 전망이다. 불교방송의 찬불가 100곡 창작이 완료된 것과 관련한 대형 무대가 연초에 기획되고, 불광사 회주 광덕스님과 박범훈교수(중앙대)가 창작할 대형 교성곡 ‘부모은중송’이 4월경 무대에 오를 계획이기 때문이다. 교성곡 ‘부모은중송’ 공연은 박범훈교수가 91년 ‘불사’ 92년 ‘보현행원송’에 이어 세번째로 선보이는 곡으로 2악장의 합창곡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연이은 대형무대의 조성은 불교음악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르와 내용이 있어서 다양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각 사찰의 합창단과 젊은 불자음악인들의 활

찬불음악 대형무대 ‘붐’ 불교연극 침체 지속... 불교희곡 ‘눈길’

동무대 넓히기, 개성있는 불교 대중음악 만들기 등에 대한 열의도 일정부분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극의 경우는 여전히 침체상황을 깨기 힘들 것이라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다만 일반 극단이 얼마만큼 불교적 소재를 다룬 공연을 준비할 것인가에 불교연극의 분위기가 무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작년 한해동안 신명예술단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서울연극회 희곡심사자에 올랐던 ‘끼다거’, 글로리아 오페라단의 ‘원료’ 등 불교적인 소재를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던 각 일 반극단이 작년과는 대조적으로 공연의 계획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문학의 해란 범주 속에서 관심을 끌 만한 불교관련 희곡이 어느 정도 눈길을 끌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영화

96년은 오랜만에 불교영화의 전성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암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시네아트), 불교의 자비사상을 주제로한 통일영화 ‘카루나’(일목필름), 구도영화 ‘유리’(하명중영화제작소) 등이 개봉된다. 94년 가을부터 촬영된 만암스님 일대기영화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감독 황학봉)는 내년 초파일 개봉될 예정. 또 불교의 자비사상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되는 영화 ‘카루나’(감독 이일목)는 분단 50년을 결산하는 ‘통일한국’ 열원의 민족 대과노라마로 2월29일 개봉된다. ‘유리’는 상업성을 배제한 예술지상주의를 표방

불교영상 전성기 전망 ‘카루나’ ‘유리’ ‘마지막...’ 등 속속 개봉

하고 있는 작품답게 해외영화제 출품을 겨냥하고 있어 ‘달마가 풍족으로 간 까닭은’ 이후 해외영화제 수상이 예상된다. 20대 젊은 불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뛰어들어 이 작품은 영화형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통쾌, 충동, 광기, 싸움, 고행을 아무런 덧칠없이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영화계에 충격을 준 작품이다. 이들 영화들은 뛰어난 작품성과 파격적인 신선한 표현 그리고 꾸준한 제작으로 불교영화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꾸준히 영화화가 거론돼온 성철스님의 일대기 ‘산은산 물은물’(금산영상사단)이 9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화 영험담

神通

길 잃은 자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밭이 되고 병든 자에게 양약이 되고 어리석은 중생에게 지혜의 샘이 되는 혜운스님의 실화 영험담!

혜운스님 / 저

지금 곧 체험해 보십시오!

질병기난 고뇌에 빠진 가정의 등불

이 책을 펴는 순간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죽은 후의 세계가 왜 두려운가를 — 소름 끼칠 귀신들의 작태, 원한 맺힌 영혼들의 해코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밝혀 준다. 이렇듯 한 많은 원혼을 달래어 극락에 보내주고 시달린 가정을 건져주는 혜운스님의神通력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귀신의 작용! 마침내 부처님의 법력으로 파헤쳐라.

신국판/312쪽/반양장
값 6,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주소 131-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730-13
전화번호 925-5730~1, 팩시밀리 925-5731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고령군 박사의 역작!!

增補版

선의 세계

高亨坤 著

제1권 서양철학과 禪

제2권 한국의 禪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선교철학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저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은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65

선(禪) 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드디어 현대어로 번역

大止觀坐禪法

摩訶止觀

대지관좌선법

전5권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은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65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을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석가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방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述 空錄 金無得 註釋